

서로 떨어져 있으나 믿음으로 연결된 세계

대부분 젊은이가 코로나 시대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상상하고 있을 즈음, 새미 한은 매우 큰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16살 새미의 부모, 한명성 "마틴" 목사와 김지은 목사가 미국장로교 선교국 (PMA)의 세계선교 [동아시아 지역 책임자](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issionconnections/myung-han-and-jieun-kim-han/)로 섬기게 되었기에, 새미는 미국에서 알고 지냈던 모든 것들 - 교회, 학교, 두 오빠, 그리고 친구들 -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한 가지는 자신의 교회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입니다.

새미는 켄터키에 있는 뉴고센 장로 교회의 중고등부 소속으로 즐겁게 예배를 기획하고 인도했습니다. 서울로 이주하기 전 최근까지, 이 교회에서 새미의 아버지는 임시 목사로 회중을 섬겼습니다. 그녀 또한 여러 사역에 참여했고, 미국장로교의 전국 모임인 빅텐트 행사에서 두 번이나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의 인디애나폴리스 행사였고, 그다음엔 2013년의 루이빌 행사였습니다.

새미와 같은 젊은 장로교인을 통해 우리는 다 같이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헌금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평생동안 간직하게 될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놓아 줍니다. 우리의 헌금은 장로교 청소년 수련회,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yav/), ["어린이 교육, 세상을 바꾼다"](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compassion-peace-justice/child/) 라는 전국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청소년 수련회에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 전 세계에서 참여할 십대들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들뜬다고 새미는 말합니다.

어느 때나 성령 강림절 특별헌금은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 헌금을 성령 강림 주일에 걷습니다. 성령 강림절 헌금의 40퍼센트는 지역의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는 교회에 되돌아가며, 나머지 60퍼센트는 장로교 선교국의 사역을 통해서 위기에 놓인 어린이, 청년, 젊은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지나 이거 버클리(장로교 청소년 수련회, 청소년 사역의 교육 선교 담당자)는 새미와 같은 젊은 장로교인을 지원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 특별헌금의 취지에 정말 잘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새미와 같은 젊은이들이 교회와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것에 투자하는 일은 즐겁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일입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게 있어, 성령 강림절 특별헌금은 교회가 젊은이들을 세우고 이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기뻐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건강한 교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활력이 넘치는 교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바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하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헌금에 기쁘게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오순절 성령님, 교회의 젊은이들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소서. 그들의 밝은 믿음이 모든 이들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아멘****.*